

과학기술처

[인사]

▼과장급 △연구기획과장 金暎植 △원자력정책 李文基 △비상계획담당 金志翰 △엔지니어링진흥과장 李康國 △대덕단지관리소장 金大錫 △연구관리과장 鄭鍾赫 △본부근무 尹東烈 宋佑根 金鎭洪
< 97/12/05 >

경북대병원

내년말까지 「암센터」 건립

경북대병원에도 암센터가 설립된다. 경북대병원은 11월19일 정부가 마련한 암정복 10개년계획에 따른 지역거점 암연구센터 도시지정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암연구전문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암센터는 방사선 항암제 내분비 치료 등 전문적인 암치료는 물론 암에 대한 기초의학과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각종 종양의 발생형태를 연구할 예정이고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암부위별로 해당 교수진이 참여, 공동연구하는 협진체제도 도입된다. 병원측은 이밖에 국내 제약회사와 대전 대덕단지내 암관련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산학협동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핵융합로 내년 제작 착수

단일 연구설비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핵융합연구장치 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은 내달 8~10일 '토카막 주장치 기본설계 검증' 회의를 열어 핵융합 핵심 장치의

골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같은 시기에 핵융합로가 들어설 특수 실험동 건설을 위한 첫 삽도 뜬다. 95년 12월 총사업비 1천5백억원 규모로 시작된지 만 2년만의 일이다. 이 '차세대 토카막 핵융합연구장치' (프로젝트명 KSTAR) 는 지금까지 건설된 세계의 어떤 핵융합 시설보다 성능이 앞선 최신 모델로 각국의 주목을 받으며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토카막이란 최소 섭씨 수천만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너츠 모양의 초진공 장치를 말한다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핵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 한국전력 산하 전력연구원 송명재(방사선안전그룹장)박사팀은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25분의 1까지 압축할 수 있는 유리고화(고화)기술 개발에 성공, 2000년부터 실용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폐기물 처리장을 추가 건설하지 않고 현재 각 원전의 저장고 시설만으로 향후 100년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삼성서울병원 & 선경제약

'패취형 관절염 치료제 부작용 적다' 선경제약은 지난 96년 2월 출시, 판매중인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 '트라스트 패취'가 삼성서울병원의 임상실험결과 부작용이 극히 적은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이 최근 발표한 '항정된 상태(Steady State)에서 피록

시카 패취의 생체내 분포연구'라는 논문에서 '트라스트 패취'를 붙일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약성분의 혈중농도는 0.11ug/ml로 먹는 관절염치료제 5.69ug/ml에 비해 50배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치가 높을수록 관절염의 치료효과가 좋은 관절액내 약물농도는 '트라스트 패취'가 5.41ug/ml로 먹는 관절염 치료제 5.37ug/ml보다 약간 높았다. '피록시캅'은 관절염 치료의 필수약물이기는 하지만 위장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위벽을 자극하고 위궤양, 위천공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며 혈액을 통해 온몸에 전달되면 전신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

부산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가동

부산대병원은 지난해부터 의료정보시스템 전문회사인 ICM과 병원통합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처방전달시스템(OCs), 의학영상정보 전달시스템(PACS), 전자 의무 기록(EMR)등을 근간으로 간호관리시스템과 진료지원시스템, 원무 및 일반관리시스템 등 모든 병원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전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환자의 병력을 비롯해 방사선과에서 촬영한 영상자료나 검사결과를 담당의사가 진료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처방전을 약국 방사선과 임

상실험 수납창구 등 관련부서로 즉시 전달할 수 있게 돼 진료업무 및 진료지원 등 병원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영남대의료원

의료정보시스템 전면 재구축

영남대의료원은「21세기 신 정보화병원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99년 9월까지 기존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클라이언트 서버 및 웹 기반의 인트라넷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기로 했다. 영남대의료원은 이에 따라 최근 데이터베이스로 오라클의 유니버설 데이터서버를, 케이스 및 개발 툴로 오라클 디자이너/2000과 오라클 디벨로퍼/2000을 각각 선정하는 한편 시스템 구축시 오라클사의 컨설팅서비스를 인수받기로 했다. 영남대의료원이 구축할 예정인 신 정보시스템은 기존 파일시스템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클라이언트 서버와 웹기반의 인트라넷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경산지역에 건립 예정인 제2병원과도 정보를 공유하도록 설계된다. 대형 종합병원 중에서 클라이언트 서버와 웹을 지원하는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은 영남대의료원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대의료원은 이 신 시스템의 구축으로 의사들이 임상병리나 방사선 관련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열람, 환자진료에 참조할 수 있게 되며 업무처리시간도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